

# 최근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과 변화

최진호  
(아주대학교)

## I. 연구목적과 방법

###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을 밝히고 과거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인구이동은 출생, 사망과 더불어 한 지역의 인구 규모의 증, 감이나 인구 구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인구학적 과정의 하나이다. 이때 출생이나 사망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 번 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개인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이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인구학적 과정 중에서도 단기간에 특정지역 인구의 규모나 구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이동의 영향력에 비하면 한국의 인구이동 연구는 출생이나 사망과 비교할 때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한국인들의 인구 이동이 다른 사회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이들 빈번한 인구이동을 모두 다 추적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는 1970년부터 인구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인 5년 전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구이동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센서스에 포함된 5년 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한국인의 인구이동 성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로 인구이동의 흐름을 분석한 후, 특히 과거 수십 년간 문제가 되어 온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구이동을 분석하려 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2005년 인구센서스는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2005년 센서스 당시의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를 비교함으로써 인구이동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럼 센서스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분석할 경우의 약점은 단순히 두 시점의 거주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 5년 동

안에 여러 번 이동을 했더라도 한 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또 같은 기간 중 이동이 있었지만 5년 전 거주지로 다시 되돌아간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번 이동이 있었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복이동과 귀환이동의 누락을 감안한다면 실제의 이동의 양은 분석에서 나타난 이동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이 연구는 2005년 센서스의 10% 표본 집계 결과와 2%의 원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보통 인구이동의 분석에 쓰이는 자료에는 인구 센서스 자료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자료나 표본조사 자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연구는 주로 인구 센서스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서 5년 전 거주지 항목이 처음으로 조사된 것은 1970년 센서스 부터로서 그 이후 1년 전 거주지, 혹은 출생지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들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총량, 지역 간, 혹은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의 방향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동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김대영, 이효구, 1979; Kim and Sloboda, 1981; 이한순, 이우리, 1983; 최진호, 1982, 1986, 1994, 1997; Noh, 1991).

또 1980년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행하여졌으며 (문현상, 한영자, 1989), 1985년부터는 매 센서스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 중에 인구이동도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인현 외, 1989; 최진호, 최병선, 1993; 김남일 외, 1997; 최진호, 2002).

## III. 한국의 국내 인구이동

### 1. 인구이동 추이

먼저 <표-1>은 1970, 1980, 1990, 2000 그리고 2005년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각 5년 간의 총 이동자수와 이동률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동은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로 정의한다.

표에서 보면 2000-2005년의 최근 5년간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는 총 914만 명으로서 2005년 현재 5세 이상 총 인구의 20.8%가 이동을 경험하였다. 총 이동자수는 1965-70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해 오다 1985-1990년의 98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1> 한국의 인구이동 추이, 1965~2005

(단위: 천 명, %)

	총이동자수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기타이동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65~1970	4,394 (100.0)	1,918 (43.7)	2,457 (55.9)	20 (0.5)	16.2	7.1	9.1
1975~1980	7,658 (100.0)	3,879 (50.7)	3,739 (48.8)	40 (0.5)	22.8	11.5	11.1
1985~1990	9,871 (100.0)	4,380 (44.4)	5,435 (55.1)	55 (0.6)	24.6	10.9	13.5
1995~2000	9,711 (100.0)	4,191 (43.2)	5,386 (55.5)	134 (1.4)	23.1	10.0	12.8
2000~2005	9,141 (100.0)	3,730 (40.8)	5,238 (57.3)	173 (1.9)	20.8	8.5	11.9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이들 총 이동자들을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1975-1980년 기간만을 예외로 하고는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최근 5년간 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시·도간 이동자가 많아 전체 이동자의 57.3%에 이르고 있으며 시·도내 이동자는 40.8%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이동의 추세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총 이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시·도간 이동자의 비율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이는 대도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주지 교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총 이동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니면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인구의 이출 압력의 완화, 또 대도시내에서의 주거 안정에 의한 이동 요인의 감소 등에도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국외에서 전입한 기타이동도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활발해 저가고 있는 국제화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 2. 시·도간 인구이동

이제 이와 같은 총 인구이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도별로 전입과 전출 그리고 순 이동을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표에서 보면 우선 서울의 경우 전입은 최근 5년 동안에 그 이전 1995-2000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101만 명이 전입하였고 전출은 거꾸로 감소해 147만 명이 전출하였다. 따라서 5년 동안의 순 이동은 1995-2000년보다 감소한 45만 6천명의 전출 초과를 보인다.

서울의 이동만을 놓고 보면 최근 5년간의 이동 패턴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서울의 전입자 수는 1985-9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5-2000년 5년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2005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거꾸로 다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출도 2000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2005년에 이르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1990년을 고비로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가 최근 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인구집중 압력이 커진 것을 의미해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를 보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순 이동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5년과 그 이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표-2> 시·도간 인구이동, 1965-2005

(단위: 천 명)

	전입					전출					순이동				
	65~70	75~80	85~90	95~00	00~05	65~70	75~80	85~90	95~00	00~05	65~70	75~80	85~90	95~00	00~05
서울	1,191	1,256	1,333	971	1,015	248	753	1,377	1,656	1,471	943	503	-44	-685	-456
부산	309	539	373	216	198	127	221	348	400	380	182	318	25	-184	-182
대구	-	-	292	201	179	-	-	213	248	244	-	-	79	-47	-64
인천	-	-	413	339	290	-	-	174	279	312	-	-	239	60	-23
광주	-	-	186	164	143	-	-	122	144	144	-	-	64	20	-1
대전	-	-	199	210	196	-	-	96	152	163	-	-	103	58	33
울산	-	-	-	110	94	-	-	-	111	96	-	-	-	-1	-2
경기	346	905	1,457	1,680	1,787	320	437	727	908	892	26	468	730	772	896
강원	103	105	123	164	148	184	275	299	178	178	-81	-170	-176	-14	-29
충북	56	73	122	169	148	164	208	190	143	152	-108	-135	-68	26	-4
충남	99	166	137	262	263	308	332	326	199	217	-209	-166	-189	63	46
전북	55	65	81	133	99	205	274	267	169	182	-150	-209	-186	-36	-83
전남	58	89	140	171	113	277	429	437	226	225	-219	-340	-297	-55	-112
경북	146	264	245	275	246	303	400	453	281	295	-157	-136	-208	-6	-49
경남	98	296	360	283	284	307	385	372	262	254	-209	-89	-12	21	30
제주	14	22	29	36	35	12	25	33	31	34	2	-3	-4	5	1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그러나 나머지 광역시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전입은 줄고 전출은 비슷하거나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전출 초과로 인한 마이너스 순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인천과 광주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에 순 이동이 전출초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1995-2000년 기간에는 순 이동이 6만 명이었으나 2000-2005년에는 2만 3천명의 마이너스 순 이동을 기록하고 있다. 7개의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대전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가 순 이동에 있어 마이너스를 보여 과거 서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 도시에서도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근교지역의 교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이하게 대전만이 비록 그 이전보다 순 이동의 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플러스의 순 이동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한편 도중에서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플러스의 순 이동을 보이는 곳이 경기, 충남, 경남, 그리고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주 등 네 곳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는 전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전출은 감소해 순 이동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00-2005년

사이에 경기도는 178만 명이 전입하고 89만 명이 전출하여 90만 명의 전입초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 경남도 순 이동의 양이 1995-2000년의 2만1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3만 명으로 증가해 서울대도시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대도시권에서도 교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과 그 이전 5년간의 시·도간 이동에서 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유출지역인 강원, 전북, 전남 등 지역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마이너스 순 이동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충북의 경우는 1995-2000년에는 순 이동이 플러스였으나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도간 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개관해 보면 최근에 이르러 인구이동의 패턴이 다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제 이와 같은 시·도간 이동의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각 도의 총 이출자중도의 이출비율과 그중에서 서울 이출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3>이다.

<표-3> 도별 총 이동자의 도외 및 서울 이동 비율,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도외	서울
경기	68.5	78.4	58.8	71.2	61.6	60.5	51.3	47.6	44.2	52.1
강원	63.0	47.3	71.6	36.7	72.4	29.1	68.7	27.5	68.8	27.2
충북	74.9	51.8	76.5	36.1	68.3	28.4	70.1	20.3	70.2	20.5
충남	75.9	63.3	69.7	47.0	81.7	28.2	76.2	20.1	74.6	19.7
전북	65.1	63.4	71.0	49.3	63.7	41.9	62.6	30.8	67.7	26.4
전남	57.9	62.8	61.3	47.3	79.6	30.4	74.6	20.8	77.3	18.5
경북	49.0	43.6	38.1	32.0	71.1	16.6	70.4	14.6	71.8	14.1
경남	70.6	21.5	64.7	15.3	53.1	15.6	55.6	13.4	53.2	14.3
제주	50.0	41.7	62.5	32.0	55.9	33.3	52.5	32.3	53.9	29.6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우선 표에서 보면 전체 시·군·구간 이동자 중에서 타도로 이동한 이동자의 비율이 높은 도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의 순으로서 대체로 70%에서 77% 가까이 타도로 전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5년 전인 1995-2000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타도로의 전출 비율이 가장 낮은 도는 경기도로서 44.2%만이 타도로 전출하였다. 최근 5년간의 인구 이동 경향을 그 이전 5년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도에서는 큰 변화 없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는 도외 이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는 이출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유인 요소들이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도와는 반대로 전북과 전남은 타도 이출자의 비율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유출 지역들로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구를 자체 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타도로 유출시키고 있다.

또 타도전출자 중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동자의 비율을 보면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4%에서 30%의 도외 이동자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는 도외 이동자의 52%가 서울로 이동하고 있어 서울로부터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서울로도 많은 인구를 내 보내고 있어 서울과의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미 서울과 그 주변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는 서울대도시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대도시권내에서의 단거리 이동이 매우 빈번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한편 서울로의 이출비율이 낮은 도는 경북, 경남, 전남, 충남으로서 이들 도에서는 도외 전출자의 20%미만만이 서울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이들 도들의 중심에 광역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위에 큰 도시가 없는 강원도와 전북은 서울로의 이동 비율이 26-27%로 높게 나타난다.

#### IV. 수도권 인구이동

##### 1. 수도권 인구이동추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5년간의 인구이동의 변화를 분석하려 한다. <표-4>는 수도권의 이동을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서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내외로의 전출과 전입, 그리고 순 이동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수도권으로의 전입을 보면 최근 5년간이 그 전보다 전입자 수가 약간 증가하였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으로의 총 전입자는 126만 명으로서 1995-2000년의 113만 명과 비교했을 때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전입자의 증가는 1995-2000년 기간이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기였기 때문에 전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최근에 들어서서 그 전 추세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이들 전입자의 목적지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그 이전 기간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대폭 증가해 1995-2000년의 49만 9천명에서 최근 5년간에는 61만 1천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전입자가 증가한 것은 주로 경기도로의 전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전입자 전체에 대한 각 목적지별 비율도 서울과 인천은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입과는 반대로 수도권 외로의 전출은 최근 5년간이 그 이전 5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전출은 72만 2천명으로서 그 이전의 88만 1천명보다 15만 9천명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출자 감소의 폭은 서울이 오히려 경기도보다 커서 서울에서는 11만 2천명의 전출자의 감소를 기록 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3만 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입과 전출의 결과 수도권의 순 이동은 대폭 늘어나 2000-2005년에는 53만 9천명의 전입 초과를 기록하여 그 이전 기간보다 29만 명의 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순 이동에 있어서 서울은 12만 5천명이, 인천은 2만 1천명이, 그리고 경기도는 14만 4천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4> 수도권 인구이동, 1965-2005

(단위: 천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수도권내 이동	373	747	1,656	1,962	1,953
경기 → 서울	251	311	440	432	465
→ 인천	-	-	102	122	103
인천 → 서울	-	-	64	65	68
→ 경기	-	-	65	119	167
서울 → 경기	122	436	825	1,098	1,058
→ 인천	-	-	160	126	93
수도권외 진입	1,164 (100.0)	1,414 (100.0)	1,547 (100.0)	1,130 (100.0)	1,261 (100.0)
서울 →	940 ( 80.8)	945 ( 66.8)	829 ( 53.6)	535 ( 47.3)	548 ( 43.5)
인천 →	-	-	151 ( 9.8)	96 ( 8.5)	100 ( 8.0)
경기 →	224 ( 19.2)	469 ( 33.2)	567 ( 36.6)	499 ( 44.2)	612 ( 48.6)
수도권외 진출	195 (100.0)	443 (100.0)	622 (100.0)	881 (100.0)	722 (100.0)
서울 →	126 ( 64.6)	317 ( 71.6)	392 ( 63.0)	432 ( 49.0)	320 ( 44.3)
인천 →	-	-	45 ( 7.2)	95 ( 10.8)	78 ( 10.7)
경기 →	69 ( 35.4)	126 ( 28.4)	185 ( 29.8)	354 ( 40.2)	324 ( 44.9)
수도권 내외간 순이동					
수도권	969 (100.0)	971 (100.0)	925 (100.0)	249 (100.0)	539 (100.0)
서울	814 ( 84.0)	628 ( 64.7)	437 ( 47.2)	103 ( 41.4)	228 ( 42.3)
인천	-	-	106 ( 11.5)	1 ( 0.04)	22 ( 4.0)
경기	155 ( 16.0)	343 ( 35.3)	382 ( 41.3)	145 ( 58.2)	289 ( 53.6)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990년대 후반기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잠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주춤하였다가 2000년 들어 다시 과거처럼 인구집중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과거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즉 2000-2005년간 수도권 내에서 이동한 총 이동자는 195만 명으로서 그 이전 1995-2000년의 196만 명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를 서울, 인천, 경기도등 목적지 별로 보면 서울을 목적지로 하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1995-2000년의 49만 7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53만 3천명으로 증가한 반면 인천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 5년간에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을 향한 이동이 과거보다 더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제 이와 같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전국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 보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표-5>이다. 표에서 보면 2000-2005년의 5년간 전국의 5세 이상 인구 중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동을 한 사람은 모두 523만 8천명이다. 이들 중에서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은 126만 1천명이고, 수도권에서 거주하다가 수도권 외로 진출해 나간 사람이 72만 2천명이다. 또 195만 3천명은 수도권내의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들이다.

지난 1965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간 이동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7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비중은 1995년부터는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5-2000년에는 73.8%, 그리고 최근 5년간에는 75.1%로 증가하였다.

이들 증가 요인을 다시 세분해서 보면 수도권에서의 전입 비중은 1965년의 47.4%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1995-2000년에는 21.0%로 감소했었으나 최근 5년에 다시 24.1%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 외로의 전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5년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표-5> 전국이동 중 수도권 이동의 비중

(단위: 천 명,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수도권외에서 전입	1,164 ( 47.4)	1,414 ( 37.8)	1,547 ( 28.5)	1,130 ( 21.0)	1,261 ( 24.1)
수도권외로 전출	195 ( 7.9)	443 ( 11.8)	622 ( 11.4)	881 ( 16.4)	722 ( 13.8)
수도권내 이동	373 ( 15.2)	747 ( 20.0)	1,656 ( 30.5)	1,962 ( 36.4)	1,953 ( 37.3)
합계	1,732 ( 70.5)	2,604 ( 69.6)	3,825 ( 70.4)	3,973 ( 73.8)	3,936 ( 75.1)
전국 시·도간 이동	2,457 (100.0)	3,739 (100.0)	5,435 (100.0)	5,386 (100.0)	5,238 (100.0)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한편 수도권내의 시·도간 이동비중은 1965년 이래 일관성 있게 증가해 1965-1970년의 15.2%에서 2000-2005년에는 37.3%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시·도간 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 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그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자의 절대 수는 최근 5년이 그 전보다 감소하기 시작해 1995-2000년의 397만 3천명에서 2000-2005년에는 393만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시·도간 이동자의 총수도 1985-1990년의 543만 5천명을 최고로 그 이후 점차 감소해 1995-2000년에는 538만 6천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523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국의 총 시·도간 이동자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동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전입자수는 절대 수에서 그리고 그 비중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0-2005년에는 그 전과 비교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 2.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90년대 말에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으로의 전입이 2000년대 초에 다시 되 살아나고 있는데 이들의 전 거주지는 어디인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6>은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를 백분비로 정리한 것이다.

2000-2005년 기간 중 수도권 전입자 총수는 126만 1천명인데 시·도 지역별로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와 충청으로 각각 수도권 전입자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다음으로는 부산과 전북으로 9%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5년 전인 1995-2000년과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주요 배출 지역은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1995-2000년에도 수도권 전입자의 주요 배출지는 강원, 부산, 충남, 전북으로서 순위는 다소 바뀌었지만 최근 5년간과 다르지 않아 과거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5-2000년과 최근을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증가한 도는 대구,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이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으로서 1995-2000년에 8.9%에서 최근에는 7.6%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전남에서 이주한 이동자의 비율은 1975-1980년에는 20.3%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광주가 광역시로 독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최근까지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6> 수도권 전입자의 전거주지,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부산	5.8	5.5	7.6	9.8	9.5
대구	-	-	4.3	6.3	6.6
광주	-	-	4.1	5.6	6.0
대전	-	-	3.2	6.2	6.7
울산	-	-	-	2.4	2.2
강원	10.2	12.3	12.7	10.4	9.8
충북	9.3	8.6	7.5	6.5	6.7
충남	22.0	18.2	13.5	9.5	9.8
전북	13.2	13.6	12.7	9.5	9.2
전남	18.0	20.3	14.8	8.9	7.6
경북	13.4	12.7	8.7	7.8	8.0
경남	6.8	6.0	7.0	6.4	6.5
제주	0.2	0.8	1.1	1.6	1.6
외국 및 미상	0.9	2.0	2.7	9.0	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입자(천명)	1,163	1,415	1,1549	1,134	1,261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앞에서 분석한 수도권 전입자의 각 시·도별 비중은 그런데 각 시·도의 인구규모에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많은 시·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표-7>에서는 각 지역의 인구규모를 감안한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을 비교함으로써 각 지역과 수도권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 지역의 인구는 인구이동의 시작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최근 5년의 각 시·도의 수도권 이출률을 보면 적게는 경남의 2.8%에서 많게는 강원도의 8.3%의 사이에서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경남은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위해서 편

의상 울산을 포함한다. 울산을 포함한 경남의 수도권 이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경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남지역에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잘 발달해 있고, 또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포함한 다수의 취업기회가 존재하는데 비해서 수도권과는 멀리 떨어진 것에 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7> 수도권으로의 이출률, 1965-2005

(단위: %)

	1965~1970	1975~1980	1985~1990	1995~2000	2000~2005
부산	4.7	3.2	3.4	3.2	3.3
대구	-	-	3.3	3.2	3.4
광주	-	-	7.1	5.6	5.6
대전	-	-	5.7	6.1	6.1
강원	6.5	9.3	11.4	8.7	8.3
충북	7.0	8.0	8.3	5.8	5.7
충남	8.8	8.7	9.9	6.6	6.7
전북	6.1	7.8	8.9	6.2	6.1
전남	5.2	7.2	8.1	5.3	4.8
경북	3.5	3.7	4.5	3.6	3.7
경남 <sup>1)</sup>	2.5	2.6	3.1	2.9	2.8
제주	1.8	2.7	3.5	3.9	3.9

주: 1) 울산 포함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반대로 인구이동 측면에서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인데 2000-2005년 동안에 강원도 주민의 8.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강원도는 과거의 자료를 보아도 1975년 이래로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해 있으면서 지역 내 인구를 흡인할 만한 대도시가 발달해 있지 못하고 아울러 충분한 산업기반도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이동의 이출률 측면에서 강원도 이외에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충남으로 6.7%의 이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전과 전북으로 각각 6.1%의 이출률을 보인다. 최근 5년간의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을 그 전 5년과 비교해 보면 많은 지역에서 이출률이 같거나 약간만 차이가 나거나 하여 거의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출률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는 지역은 강원과 전남으로서 강원도의 경우는 이출률이 1995-2000년의 8.7%에서 최근에는 8.3%로 줄어들었으며, 전남의 경우에도 역시 5.3%에서 4.8%로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출률의 변화는 이들 두 지역의 수도권에 대한 인구이동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 3.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앞에서 우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압력이 1990년대 후반기의 경제 침체기를 거치면서 다소 완화되었으나 2000년대 전반기에는 그 추세가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그 전 5년과 비교해 다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압력이 아직도 지방에 과거처럼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이때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입이유를 정확히 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동이유를 묻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제 <표-8>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1995-2000년과 최근 2000-2005년의 5년간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전입자와 같은 기간 중에 수도권 외로 전출해 나간 전출자, 그리고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최근 5년간 수도권 전입자와 전출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이동자의 성에 있어서는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수도권 전입자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전입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출자 중에는 거꾸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이와 같이 전입자 중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경향은 1995-2000년기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출자 중에서는 남 녀의 비가 거의 비슷했었으나 최근에는 전출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아 다소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와 전출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입자의 경우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전출자보다 그 비율이 높은데,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예컨대 전입자 중에서는 20-24세 연령층의 비율이 13.7%인데 비해서 전출자의 경우는 7.9%이며, 마찬가지로 25-29세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19.0%, 11.8%로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는 반대로 14세 이하와 30세 이상에서는 전출자에서 그 비율이 높은 데 특히 전입자와 전출자간 차이가 큰 연령층은 14세 이하와 35-39세, 그리고 60세 이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연령분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학업이나 취업기회에 이끌려서 전입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이며, 거꾸로 전출자 중에서는 은퇴에 따른 노년층의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5-2000년에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었는데 다만 그 때와 다른 점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 그 차이가 더 커 졌다고 하는 점이다.

한편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를 보면 전입자의 학력이 전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그 차이는 대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입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나 졸업의 비율은 45.6%이나 전출자의 경우는 37.0%이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8>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단위: %)

	구분	1995~2000			2000~2005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전입자	전출자	거주자
성	남자	47.5	50.9	49.4	46.9	53.3	49.0
	여자	52.5	49.1	50.6	53.1	46.7	51.0
연령	14세 이하	13.7	20.0	22.4	13.8	16.5	20.2
	15~19	6.4	4.5	7.6	5.5	3.7	6.3
	20~24	15.7	7.2	6.4	13.7	7.9	6.2
	25~29	22.1	14.4	9.1	19.0	11.8	7.8
	30~34	14.3	17.6	9.6	15.1	15.6	9.3
	35~39	9.8	14.4	9.9	10.5	13.3	9.4
	40~44	6.5	8.1	9.4	7.7	8.5	9.3
	45~49	3.4	4.0	6.7	4.8	6.6	8.8
	50~54	1.9	2.4	5.2	2.6	3.8	6.2
	55~59	1.3	2.0	4.3	1.9	3.2	4.9
	60이상	4.9	5.5	9.4	5.5	9.0	11.6
교육	불취학	5.4	7.0	13.3	4.3	6.5	10.4
	초등학교	12.2	17.2	16.6	11.6	14.8	15.3
	중학교	7.1	9.0	12.4	6.5	7.8	11.5
	고등학교	31.0	34.5	34.6	25.7	28.8	32.0
	대학교	43.3	31.5	22.7	45.6	37.0	27.7
	대학원이상	1.2	0.9	0.4	6.3	5.1	3.0
혼인상태	미혼	41.1	23.3	28.6	42.7	28.2	29.3
	유배우	52.7	70.0	63.0	50.3	62.8	61.0
	사별	4.2	4.1	6.2	4.1	4.9	6.4
	이혼	2.0	2.6	2.2	2.9	4.1	3.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1.7	62.5	62.3	56.0	53.3	51.2
	미취업	38.3	37.6	37.8	44.0	46.7	48.8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82a); 통계청 (1993, 2002a, 2006)

또 흥미 있는 것은 비이동자인 거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교 학력 소유자의 비율이 27.7%로서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와 비교해서 매우 낮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그것이 전입이든 혹은 전출이든 간에 교육과 관련된 이동을 상당수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입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또 상당수가 취업과 동시에 수도권 외로 전출하는 경향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관련된 해석으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학력수준의 차이는 5년 전인 1995-2000년에도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났었는데 다만 최근에 와서는 전입자와 전출자 모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5년전보다 높아져 최근의 학력 수준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드러난 전입자와 전출자간의 연령 분포의 차이는 그대로 혼인상태에 반영되어 전입자에 있어서는 전출자보다 미혼의 비율이 높고, 거꾸로 유배우의 비율은 전출자에 있어서 더 높다. 한편 경제활동 상태에 있어서는 전입자와 전출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취업자 비율이 각각 56.0%, 53.3%로 전입자에 있어서 그 비율이 조금 높다.

경제활동상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은 1995-2000년과 비교해 이동자나 비아동자 모두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최근에 낮아졌다는 점이다. 즉 1995-2000년에는 취업자 비율이 대체로 60%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0-2005년에는 50%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여자가 많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 20대의 연령층이 전입자 중에 많다. 학력수준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미혼의 비율이 전입자에게서 높다. 이와같은 최근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은 그 이전인 1995-200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큰 변화가 없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앞에서는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을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분석하였으나 이제 이들의 특성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수도권을 중심도시인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들 수도권의 두 지역으로의 전입과 전출 그리고 이들 지역 간의 수도권 내 이동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 이동자의 남녀별 성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 내 이동과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자 중에는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전출자에서는 남자가 많다. 그런데 수도권 전입자를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와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전입한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중 여자는 54.5%로 경기나 인천으로 전입한 경우의 51.6%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수도권 전입자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 중에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로의 전입자 중에서 여자가 많은 것은 주로 여성취업과 관련된 이동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입의 경우와는 달리 수도권 전출자중 서울에서 전출한 경우와 경기 인천에서 전출한 경우 간에는 두 경우 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지만 이동자의 성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수도권 전입자중 특히 20-24, 25-29세의 젊은 층의 유입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흐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 중 20-24세의 비율이 19.4%, 그리고 25-29세의 비율은 22.5%인데 비해서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으로의 이동자 중 같은 연령층의 비율을 각각 10.9%와 18.1%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20-24세 연령집단의 차이가 더 큰데 이는 주로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의 대학생의 이동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제 이들 이동자의 연령 분포를 수도권 이동의 6개의 흐름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의 전입은 주로 20대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 경기나 인천의 흐름에서는 20대

후반과 30대의 비율이 특히 높다.

<표-9> 수도권내 지역별 이동자의 특성, 2000-2005

(단위: %): (%)

	구분	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 외 전입		수도권 외 전출	
		경기/인천 -> 서울	서울 -> 경기/인천	지방 -> 서울	지방 -> 경기/인천	서울 -> 지방	경기/인천 -> 지방
		성별	남자	48.8	49.7	45.5	48.4
	여자	51.2	50.3	54.5	51.6	46.4	46.9
연령	14 이하	18.2	13.6	11.0	15.5	13.2	19.2
	15-19	4.9	2.7	6.5	5.0	2.9	4.4
	20-24	7.2	5.1	19.4	10.9	6.8	8.8
	25-29	11.9	11.1	22.5	18.1	12.8	11.1
	30-34	14.7	18.6	12.9	16.4	17.8	13.9
	35-39	13.1	13.5	7.5	11.4	12.6	13.9
	40-44	10.1	7.1	6.5	7.7	8.0	9.0
	45-49	7.0	5.9	4.5	4.5	6.7	6.5
	50-54	3.8	5.2	2.7	2.3	4.6	3.3
	55-59	2.7	5.2	1.8	1.9	4.0	2.5
	60이상	6.3	12.1	4.7	6.2	10.7	7.5
교육정도(1)	불취학	4.8	5.0	3.4	5.0	6.2	6.7
	초등학교	13.8	12.9	9.1	13.2	12.7	16.4
	중학교	7.9	7.4	5.2	7.1	7.0	8.5
	고등학교	26.5	29.6	21.3	30.0	26.6	30.7
	대학교	40.7	39.7	54.9	40.4	40.8	34.0
	대학원 이상	6.3	5.4	6.1	4.3	6.8	3.7
교육정도(2)	불취학	4.8	5.0	3.4	5.0	6.2	6.7
	초등학교	13.8	12.9	9.1	13.2	12.7	16.4
	중학교	7.9	7.4	5.2	7.1	7.0	8.5
	고등학교 재학/수료/중퇴	3.2	1.8	2.8	2.9	1.5	2.5
	고졸	23.3	27.8	18.5	27.0	25.0	28.1
	대학교 재학/수료/중퇴	7.1	5.7	15.8	7.1	9.1	10.8
	대졸	33.6	33.9	39.1	33.3	31.7	23.2
	대학원 재학/수료/중퇴	1.3	1.3	2.2	1.1	1.5	1.0
	대학원졸	5.0	4.2	3.9	3.2	5.3	2.7
혼인상태	미혼	31.0	23.9	55.3	36.4	28.1	28.3
	배우자 있음	61.1	67.9	38.3	55.9	62.7	62.9
	사별	4.1	5.0	3.8	4.6	5.4	4.4
	이혼	3.8	3.2	2.6	3.1	3.8	4.4
경제활동상태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	56.9	54.4	54.6	58.0	54.6	52.3
	미취업	43.1	45.6	45.4	42.0	45.4	47.7
직업	전문/기술	32.3	28.5	36.0	28.1	27.5	22.6
	행정/관리	4.0	5.1	1.8	2.1	5.2	3.7
	사무	24.6	23.0	26.0	21.5	17.5	14.4
	판매	11.7	10.7	10.6	7.9	8.0	8.7
	서비스	9.5	8.8	11.3	10.2	11.4	10.9
	농림어업	0.1	1.2	0.2	0.6	8.5	9.4
	생산/운수/장비/노무	17.8	22.7	14.1	29.5	21.9	30.4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센서스 2% 표본의 자료

여기에 비해서 수도권에서의 전출 이동의 경우는 서울에서 전출하나 경기 인천에서 전출하나 모두에서 30대 전반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에서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연령 분포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는 특히 30대 전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동자의 연령분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과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방으로의 이동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에서는 12.1%, 서울에서 수도권 외로는 10.7%로서 다른 인구이동 흐름에서 보여주는 6% 안팎의 비율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는 노년층의 경우 은퇴나 자녀들의 출가 이후에 서울 외곽의 근교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자의 교육정도는 각급 학교의 재학과 수료, 중퇴, 졸업을 다 합쳐서 보면 수도권 내 6개의 모든 이동의 흐름에서 대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교 학력의 비중은 각 흐름마다 달라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자 중에서 54.9%로 가장 높고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자중의 34.0%로 가장 낮다. 이 두 흐름을 제외한 다른 이동에서는 대학 학력의 비율이 대체로 40%정도를 나타낸다.

이제 이들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 내·외로 이동하는 젊은 층의 규모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 <표-9>에서는 교육정도를 재학, 수료, 중퇴와 졸업으로 다시 세분하여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먼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에서 서울로의 흐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서 39.1%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자중에서 23.2%로 가장 낮다. 또 나머지 흐름 중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자중에는 33%가량이 대졸 학력을 갖고 있으며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출해 나간 이동자 중에는 이보다 조금 그 비율이 낮아 31.7%를 보인다.

한편 대학 재학이나 수료, 중퇴의 비율을 보면 이들 흐름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그 비율이 15.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반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는 5.7%로 가장 낮다. 또 이 비율은 서울에서 지방의 흐름에서는 9.1%,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는 10.8%를 보여 수도권 관련 이동자중의 상당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로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대학교 재학, 수료, 중퇴자를 다 합친 인구 중에서 대학교 재학자의 비율은 79%가량이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 흐름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55.3%로 가장 높고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36.4%로 그 다음으로 높다. 미혼자의 비율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가장 낮아 23.9%를 보이는데 이는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은 주로 기혼 층의 주택관련 이동이거나 혹은 은퇴 등의 가족관련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활동상태는 수도권 내 지역별 이동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취업자의 비율이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흐름에서 58.0%로 가장 높고 거꾸로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에서 52.3%로 제일 낮다.

이제 이들 취업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수도권 외든지 수도권 내에서든지 서울로 향한 이동의 흐름에서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이 비율은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36.0%로 가장 높고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의 흐름에서는 32.3%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난다.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전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27.5%, 경기 인천에서는 22.6%로 가장 낮다. 이에 비해서 생산 운수 장비 노무직의 경우에는 전문 기술직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서울로 향한 이동의 흐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아 예컨대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에서는 14.1%를 보인다. 그러나 이 비율을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의 흐름에서는 3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에서 경기 인천으로의 이동에서 29.5%로 높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두가지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선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은 여전히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에 생산직 노무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수도권의 인구집중

앞에서 우리는 최근 5년간인 2000-2005년의 인구이동 분석에서 전국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이동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로의 전출이나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량은 최근 5년간에 1995-2000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에서의 전입은 거꾸로 그 이전보다 약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내외간의 순 이동도 1995-2000년에 24만 9천명의 전입초과에서 2000-2005년에는 53만 9천명의 전입초과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은 1995-2000년 기간 중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잠시 완화되었으나 2000-2005년에는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 인구집중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를 정리한 것이 <표-10>이다. 표에서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는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1990년 이후는 5년 간격으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10> 수도권의 인구집중, 1960-2005

(단위: 천 명,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서울	2,445	5,525	8,364	10,613	10,231	9,895	9,820
경기도 <sup>1)</sup>	2,749	3,353	4,934	7,974	9,958	11,459	12,946
수도권 <sup>2)</sup>	5,194	8,879	13,298	18,587	20,189	21,354	22,766
전국	24,989	31,434	37,436	43,411	44,609	46,136	47,279
서울/전국	9.8	17.6	22.3	24.4	22.9	21.5	20.8
경기도/전국	11.0	10.7	13.2	18.4	22.3	24.8	27.4
수도권/전국	20.8	28.2	35.5	42.8	45.3	46.3	48.2

주: 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2006)



먼저 전국인구에 대한 서울인구의 비중은 199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4%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는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0.8%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서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인구비중은 꾸준히 그 비중이 늘어나 2005년에는 27.4%에 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서울보다 더 커진 시기는 2000년으로서 이때 경기도는 전국인구의 24.8%인데 비해서 서울은 21.5%로 인구 비중이 역전되었다.

2005년에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8.2%로서 1960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비중의 증가 폭이 최근 2000-2005년의 5년간에는 1.9% 포인트로서 지난 1995-2000년의 증가폭인 1.0% 포인트의 두 배 가량 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정도가 지난 1995-2000년보다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의 심화경향은 <표-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1>은 1960년부터 1990년 까지는 10년 간격으로, 그리고 그 이후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간격으로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수도권 인구 증가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전국 인구 증가분에 대한 서울 인구 증가분의 비중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거의 50%에 가까웠으나 그 이후 감소해 1990-1995년 기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그 마이너스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어 최근 2005년에는 마이너스 6.6%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의 인구증가분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95년 기간에는 165.6%에 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5-2000년에는 98.3%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2000-2005년에는 다시 증가해 130.1%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 비중은 1990-95년에 133.7%를 기록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76.3%까지 감소하였었고 최근 5년간에는 다시 123.5%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에 전국에서 증가한 인구를 상회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11> 수도권의 인구증가분, 1960-2005

(단위: 천 명, %)

	1960~1970	1970~1980	1980~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서울	3,080	2,839	2,249	-382	-336	-75
경기도 <sup>1)</sup>	605	1,580	3,040	1,984	1,501	1,487
수도권 <sup>2)</sup>	3,685	4,419	5,289	1,602	1,165	1,412
전국	6,445	6,002	5,975	1,198	1,527	1,143
서울/전국	47.8	47.3	37.6	-31.9	-22.0	-6.6
경기도/전국	9.4	26.3	50.9	165.6	98.3	130.1
수도권/전국	57.2	73.6	88.5	133.7	76.3	123.5

주: 1) 인천 포함.

2) 수도권 = 서울+경기도

자료: 경제기획원(1963, 1972, 1982a): 통계청(1993, 1997a, 2002a, 2006)

## VI. 요약과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그 이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이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을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총량은 1985-9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해 2000-2005년에는 914만 1천명이 이동하였다. 이동률은 20.8%로서 5명당 1명꼴로 이동을 경험하였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도간 이동이 시·도내 이동보다 많다.

시·도간 인구이동분석에서 드러난 최근의 인구이동 특징은 과거 1990년대 후반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완화경향이 최근 2000-200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로의 전입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간 이동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 전입자의 전 거주지나 각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이출률에 있어서는 과거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전출자에 비해 여자가 많으며,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어 20대가 많다. 학력수준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월등히 높으며미혼의 비율이 전입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은 5년 전인 1995-2000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서울로 전입하는 이동자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고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때 서울 전입자의 학력이 높은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인구이동패턴에 관한 분석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최근 들어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경향이 다시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나 인위적인 지방으로의 인구의 분산 배치보다는 지방에서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는 인구이동의 분석이 시·도간 분석에 더하여 대도시권 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대도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주변에서는 이미 대도시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행정구역의 의미가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도시권 내외의 이동 분석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일, 최순, 박우순, 양기석. 1997.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 특성변화』. 통계청.  
김대영, 이효구. 1976.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문현상, 한영자. 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이동분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한순, 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1960-80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제24권.
- 최인현, 윤종주, 김수봉, 정기원, Huguet. 1989. "인구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종합분석 보고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최진호. 1982.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권.
- \_\_\_\_\_. 1986. "인구분석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제9권.
- \_\_\_\_\_. 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 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제 17권.
- \_\_\_\_\_. 1997. "인구이동패턴의 변화, 1960-1990."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신사.
- \_\_\_\_\_. 2002.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 제 13장. 통계청
- 최진호, 최병선. 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통계청.
- Kim, Dae Young and John Sloboda. 1981. "Migration and Korean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 Noh, Hee-Bang. 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